

RaonAtti 5th Cambodia

<5월 보고서>



목차

1. 5월 활동보고
2. 5월! 이렇게 보냈어요
3. 5월 사진전

5월 활동보고

하나, 도서관 꾸미기

도서관 벽면에 빈 공간을 활용하여 동화 그림자료를 붙였다. 4기 선배들이 해 놓은 강아지똥, 낙점반에 이어 이번 동화는 국어 교과서에 나오는 <두더지 사위>로 정했다. 유명한 동화들이나 캄보디아 동화도 많지만, 기왕이면 도서관에 이미 구비되어 있는 책보다는 아이들에게 좀 더 다양한 내용을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크레파스와 물감, 파스텔로 한 컷 한 컷 정성스레 그리고 아스텔지로 꼼꼼히 붙이는 작업들이 결코 만만하지는 않았지만, 허전해 보였던 벽이 가득 채워져 마음마저 뿌듯하다!

둘, 도서관 청소하기

오랜만에 도서관 건물을 대청소했다. 특히 2층 올라가는 계단과 교실들은 먼지가 쉽게 쌓이고 더러웠는데,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 올리면서까지 열심히 한 결과, 깨끗이 청소를 끝냈다. 낡은 화분도 골라내고 꽃과 나무를 새로 심으니 분위기마저 달라진 느낌이다. 이제 도서관에 오는 아이들은 물론, 쌀라아띠 수업에 오는 아이들까지 보다 깨끗하고 밝은 교실에서 수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셋, 창고 대정리!

센터를 방문한 하나고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창고를 정리했다. 후원물품들을 보관해두는 창고에서 물품들을 모두 꺼내 종류별로 모아 물건들을 쉽게 찾을 수 있게 되었다. 만약 우리뿐이었다면 엄두가 안 났을 거대 프로젝트였지만, 봉사자들 덕분에 하루만에 수월히 끝낼 수 있었다.

<5월 이렇게 보냈어요!

프놈그라운 중학교

오늘은 가족에 대해서 배우는 날!!

다같이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등 가족에 대해 배우고 놀이를 시작했다.

오늘의 놀이는 가족이 되어 가계도 그리기!!

이름과 가족 역할이 적힌 종이를 각자 한 장씩 나누어 갖고 각 가족이 모여 가계도를 얼마나 빨리 그리느냐가 관건인 놀이.

사실 아이들이 어려워할까봐 걱정했는데..

세상에나 이렇게 폭발적인 반응일 줄이야!!

선물을 걸어서 그런가..



어쨌든!!

1등은 정석이네 가족!, 참 잘했어요 짹짹
오늘의 선물은 연필과 지우개

이 작은 선물 하나만으로도
오늘 수업 집중도는 100점!!!

간단한 게임만으로도 너무 즐거워 하는
귀여운 아이들을 위해 더욱 더
재미있는 게임을 개발해야지!!

<5월 이렇게 보냈어요!

살라이띠-로얄(울동)



오늘은 화요일이다. 밥퍼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 우리반 아이들이 반갑게 찾아온다. “튼아이니 로얄?” 이라고 물어보는 아이들의 눈동자에서 빨리 춤추고 싶다는 느낌을 느낄 수 있다. 밥퍼를 끝내고 재촉하는 아이들을 모아서 출석을 부르고 나서 음악을 틀고 간단한 울동을 시작한다. 울동을 할 때만큼은 아주 귀엽고 순한 아이들이 된다. 20분쯤 하고 나면 빠른 비트의 음악으로 바꾼 후 댄스를 시작한다. 여기저기서 환성과 환호가 나오고 그때부터 진지한 아이들이 된다.

사실 내 자신이 누군가를 가르칠 실력이 부족하지만 함께 연습한다는 생각으로 임하고 있다. 춤을 가르치다 보면 박자를 놓친 아이, 쓱스러워하는 아이 등 여러 아이들이 있어 매번 처음부터 다시 하긴 했지만 1달이 지난 요즘은 숙달이 되어 나보다 더 잘하는 것 같다. 그럴 때 마다 뿌듯함과 동시에 나 또한 더 분발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아침,, 시작하기 전보다 지금 아이들의 모습이 더 밝아진 것 같다는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를 들으니 오늘 하루는 기분이 날아갈 정도로 좋다. 나날이 늘어만 가는 아이들 댄스실력의 한계는 어디까지 인지 나도 너무 궁금하다! ㅋㅋ

<5월 이렇게 보냈어요!

유치원 수업

5월 일, 수요일 아침 9시. 센터에 도착하자마자 어제 미리 준비해둔 대야와 세제, 빨대, 페트병, 물감 등을 챙겨 들고 샘물다일유치원으로 나섰다. 오늘 수업은 비누방울 놀이. 밥퍼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세제로 비누방울을 만들며 노는 모습을 보고 문득 떠오른 아이디어였다. 많은 아이들을 한꺼번에 진행하기엔 무리가 있을 것 같아 아이들을 세 그룹으로 나누고, 각 그룹마다 담당할 사람과 아이들을 인솔해줄 사람을 정하고 수업을 시작했다. 세 그룹은 각각 손으로 비누방울을 만들고 불거나, 페트병을 잘라 앞 부분으로 불고 아래 부분으로는 물감을 담아 그림을 그리는 활동을 했다.



물론 수업이 우리 예상대로 원활하게 진행된 것만은 아니었다. 도중에 그룹마다 아이들이 섞이고, 물감들을 바닥에 쏟는 바람에 유치원 바닥이 물감 범벅이 되기도 했다. 그런 상황에서도 신이 나서 비누방울을 불어대며 "네 크루!(선생님)"를 연신 외쳐대는 아이들을 보면, 힘든 순간도 잠깐이다. 우리의 교육활동 중에서도 가장 연령대가 낮아 의사소통이 어려운 부분이니 만큼 우리도 늘 준비에 신경을 쓰지만, 매번 유치원에서의 1시간은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게 훌쩍 지나가버린다

. 마지막까지 손에서 놓지 않으려는 아이들을 뒤로하고, 곧바로 10시에 있을 프놈크라움 중학교 수업을 위해 정리를 서둘렀다. 오늘의 인사도 씩씩하고 힘차다. "어쨌든 네크루!(고맙습니다 선생님)"

<5월 이렇게 보냈어요!

Staff 한국어 교육



스텝들 중 한국어를 가장 잘하는 '파리'는 나와 1:1로 수업을 한다. 수업은 보통 한국어와 크메르어, 영어 이렇게 3개국어로 진행한다. 내가 일방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수업이 아니라 한국어와 문화를 알려주면 파리는 내게 크메르어와 캄보디아의 문화에 대해서 알려주는 식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선생님이 되고 학생이 된다. 수업시간에 사용하는 주교재가 있어서 평소에는 그 책으로 한국어를 읽고 문법을 설명하는데 가끔은 한국 노래를 활용해서 가사의 의미와 일상의 말들을 알려준다.



파리는 한국어 배우는 것에 열심이어서 매시간 궁금했던 것을 적어와 내게 물어보는데, 배움에 열과 성의를 다해주는 파리가 고맙고 예쁘다.

언젠가 파리가 내게 내가 친구이고 편안하기 때문에 자기가 궁금했던 것들을 부담 없이 물어볼 수 있어서 좋다고 했다.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모른다.

요즘 파리의 고민은 자신의 한국어 억양이다. 한국어 발음은 좋은데, 억양이 한국사람처럼 자연스럽지 못한 것이 많이 속상하다고 한다. 한국어를 또박 또박 들을 수 있는 듣기 자료가 없다는 것이 마음에 걸려서 요즘 나는 우리 교재를 내 목소리로 전부 녹음하고 있다. 다음주 즈음에는 녹음파일을 전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파리가 좋아할 것을 생각하니 나도 기분이 참 좋다.



<5월 이렇게 보냈어요!

한글학교

아침부터 준비물 챙기기에 정신이 없었다. 오늘은 저번주에 국어 교과서에 나온 종이컵 인형 만들기와 산가지 놀이를 직접 해보기로 하는 날! 정규학교 수업시간이면 교과서에 나온 내용을 직접 해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이곳 한글학교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고, 아이들이 직접 해보면서 익히면 더 잘 배울 수 있을 것 같아 아이들과 함께 해 보기로 했다.



저번주에 만들기를 해보기로 약속하면서 뿔 듯이 기뻐한 아이들을 볼 때, 분명 오늘 하루를 위해 일주일의 기대하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간의 부담을 안고 우리반으로 들어간 순간!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의 우리 반 아이들이 그곳에 있었다.

만들기를 시작하자 평소에는 수업 중간 중간에 돌아다니고 떠드는 아이가 오늘은 쉬는 시간이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중하고 있는 놀라운 아이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처음엔 허탈하였다. 그동안 내가 수업을 집중하게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 이렇게 쉽게 해결되는 방법이 있었다니!

하지만 만들기를 하며 또 산가지놀이를 하면서 즐거워 하는 아이들을 보니 하길 참 잘 했다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도 이런 시간을 종종 가지면 참 좋을 텐데..다음주엔 만들기가 없어서 아이들이 오늘과 같은 집중을 보일지는 모르겠다. “얘들아! 다음 주엔 공부하자!”



<5월 사진전>

바라이 단합대회



달콤한 휴식



승자는 과연 누구?



간식도 맛있게 만들자!!

<5월 사진전>

앙코르왓트



똑같아요!!



일출은 못 봤지만 괜찮아!!



쫄로록!! 치즈~



신났구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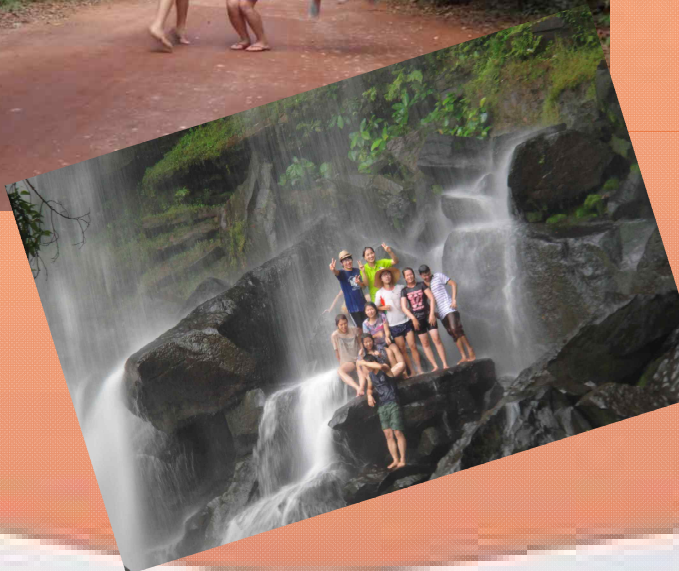


꼬꼬마 탐험대!



<5월 사진전>

프놈꿀린



<5월 사진전>

파티에 초대받았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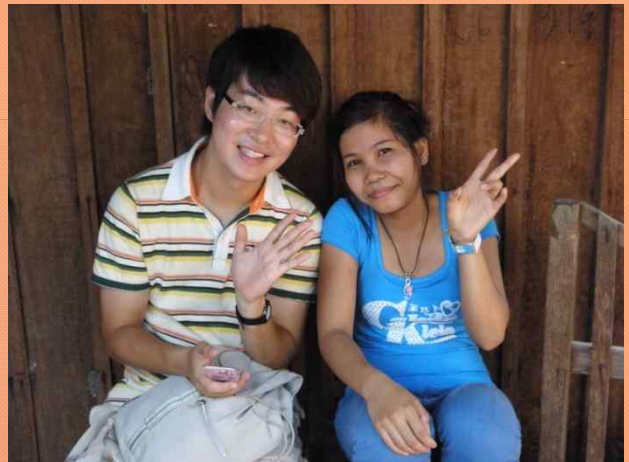
요리도 하고



구경도 하고



우리가 준비한
김밥@@



새로운 친구도
만나고!!

다같이 치~~즈





게임도 하고



장기자랑도 하고!!



비를 맞으며 걷는
시엠립 시내



근데, 검은 봉다리 넌 누구냐?

그럼, Bye Bye :D